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에 참여한 재가자들이 삼보일배를 하며 자아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사진왼쪽). 문수선원 개원식에서 수행 중심 도량으로 발전방향을 밝히는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사진오른쪽 아래).

월정사, 수행 전문 도량으로 거듭난다

5월 12일 문수선원 개원 이어 단기출가학교 개교

평창 월정사가 전국 최대 규모의 재가자 전문수행기관 '문수선원' 개원을 기해 선 수행 증진에 나섰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법)는 5월 12일 재가자 전문수행시설 '문수선원'을 개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권성동 국회의원, 김남수 도환경관광문화국장, 이석래 평창군수, 이만재 평창군의장을 비롯해 스님과 불자 1000여 명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2009년 12월에 착공해 2년 6개월 공사 끝에 완공된 '문수선원'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상설 수행공간으로 지상 2464.04㎡(745.37평), 지하 1989.56㎡

(601.84평) 규모다. 템플스테이와 단기출가학교 참가자들을 위한 남녀 숙소와 강의실 및 연구실, 참선지도 공간 등 지하 1개동, 지상 5개동 등 총 6개동을 갖추고 있다.

이날 개원식에서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월정사는 템플스테이와 단기출가학교 운영에 이어 이번에 문수선원을 개원함으로써 특성화된 재가수행문화 풍토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오대산 청정 환경과 더불어 월정사를 수행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8년 승려 수행공간인 '만월선원'을 개원한 월정사는 이번 문수선원 개원을 기

해 출제가 수행 풍토 증진에 나설 예정이다. 첫 행사는 7월 1~23일 진행되는 제33차 단기출가학교다. 제33차 단기출가학교에서는 문수선원과 월정사 일대에서 전문적인 수행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0명 수용 가능한 문수선원 개원 재가자 참선수행 새 지평 기대

한 달간 행자생활을 체험하는 단기출가학교에서는 예불과 108배, 발우공양, 율력을 비롯한 사찰생활과 참선, 전나무 숲길 포행, 불교 교리 강의, 적멸보궁 삼보일배



용맹정진을 발원하는 단기출가학교 재가자들.



교도소에도 부처님의 법음이~

포교사단, 5월 24일 목포교도소 봉축법회

재소자들을 위한 특별한 봉축법회가 열려 화제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은 5월 24일 목포교도소 대강당에서 수행자 불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처님오신날 봉축대법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목포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해원 스님, 목포 정혜원 주지 효천 스님, 정영균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장을 비롯해 10여명의 교도소 교화 전담 포교사들

이 참여했다. 목포 정혜원 에밀레 합창단의 축가로 시작된 1부 법요식에서 해원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 그리고 '인욕'이 중심"이라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스스로 돌아봐 안에서나 밖에서나 행복한 삶을 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울림 마당에서는 재소자 장기자랑과 각설이타령, 불자 가수들의 공연이 함께 펼쳐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운대경찰서 경승 취임식 및 법회

부처님마를 주지 효범 스님의 경승실장 취임식이 5월 24일 해운대경찰서 3층 직무교육장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와 함께 봉행됐다.

효범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경승실장으로 취임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지속적인 법회를 통해 부처님 법을 전하고 해운대경찰서 불자들을 위해 힘쓰겠다"

고 말했다. 부산 지역은 부산지방경찰청을 포함해 16개 경찰서에 경승단이 구성되었다. 부산경찰청과 동부경찰서, 강서경찰서를 제외한 13곳은 동호회 형태 모임을 통해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사하구경찰서도 5월 25일 직무교육장에서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원효학원, 원효성사 제향대제 봉행

원효학원연구원(이사장 성타)이 주최하고 분향사와 불국사가 주관하는 1326주년 원효성사 제향대제가 5월 19일 분향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과 관장 종상 스님, 유상현 경북도청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300여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제향법어 경모사 추모사 봉향제문 낭독 및 추모의 노래 등으로 진행됐다. 분향사 주지 종우 스님은 "원효성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되돌아오자"고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아픈 동료 도우려 머리 깎았어요"

부산 내원정사 동자승 자비 탁발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법)는 5월 25일 부산 남포동 대영시네마 앞에서 동자승 탁발식을 개최했다. 이날 동자승 탁발식에는 내원정사 스님들과 1주일간의 단기출가를 거친 동자 16명, 동녀 20명을 비롯해 100여 신도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 시간 가량 남포동 일대를 행진하며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비 탁발'을 진행했다.

정법 스님은 "잠깐 동안이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수행을 경험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마음에 불심이 자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탁발 행렬은 근대역사관 건물 앞에서 회향했으며 내원정사는 탁발로 모인 금액 전액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자장면도 먹고 봉축도 즐겨요

송광복지관, 5월 24일 광산구 구민공원서 한마음잔치

"스님이 주는 자장면도 맛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니 좋네요"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제)은 5월 24일 광산구 구민공원에서 광산구 시영아파트인차인대표들과 함께 '한마음·한가족·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광산구 대표적 서민지역인 우산동 시영아파트 1500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날 행사는 지역 내 불교복지관과 임차인대표자, 우산동복지네트워크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특히 행사에는 자장면 스님으로 알려진 남원 선원사 운전 스님과 광주 자비신행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해 보시 및 봉사활동을 펼쳤다.

행사 기념식에는 前송광사 주지 현교 스님, 도제 스님, 민형배 광산구청장, 김동

철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여했다. 기념식에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착한 효도상', '아름다운 부부상', '건강한 장수상', '행복한 가족상' 등 시상이 진행돼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어 진행된 2부에는 난타공연, 장기자랑, 시립국극단의 공연이 펼쳐져 흥을 돋웠다.

도제 스님은 이날 인사말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라며 "이웃과 스승, 그리고 가족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민흥기 씨(79)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주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잔치를 열어줘 고맙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웅전 그늘서 꽃피는 아이들 재능' 미래의 우리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전북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에 모여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5월 18일 선운사와 고창문화원이 공동주최한 제 36회 동백연 청소년문화예술경연대회에는 전라북도의 유치부 어린이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과 학부모 1500여 명이 참여했다. 문화예술부문과 민속부문, 체험부문에 나뉘어 진행된 이날 행사는 경연부문에 백일장, 미술, 만담설화 등 문화예술부문과 제기차기, 투호, 긴줄넘기 등의 민속부문, 탁본, 향토문화알기 등 체험행사가 펼쳐졌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오늘 행사로 청소년들이 불심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갖고 문화예술의 큰 재목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재 전북지사장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법자세교정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뼈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정혈요법)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의료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대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특전 :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93-5111 / 019-517-173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은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병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중,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